

임실군, 생활인구 110만명 돌파

‘체류인구 6.5배’ 도내 2위... ‘임실N치즈·천만관광’ 압도적 체류 경쟁력

정주인구와 체류인구를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이 정부 인구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으면서, 지역활력 회복과 지방정부 시대 실현을 향한 정책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산출하는 생활인구 통계를 정책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가운데, 임실군이 변화된 인구정책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단순한 ‘거주인구 늘리기’에서 벗어나 찾고, 머무르고, 소비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핵심자산으로 인정하는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임실군은 생활인구 확대를 지역발전 전략의 중심에 두고 관광·정주·산업을 연계한 종합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임실군의 생활인구는 완만하지만 의미있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임실군의 생활인구는 2024년 상반기 109만 8,343명에서 2025년 상반기 110만 2,75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11



임실군이 변화된 인구정책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임실N치즈축제 모습.

명이 증가했다.

특히, 임실군은 체류인구 지표에서 도내 최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임실군의 연평균 체류인구 배수는 6.5배, 2025년 상반기에만 6.1배로 나타나 도내에서 무주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체류인구의 실질적인 지역경제 기여도 또한 통계로 확인된다.

체류인구의 지역 내 카드사용액 비중은 2024년 55.9%, 2025년 상반기에만 45.4%로 집계돼 절반에 가까운 소비가 지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났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임실N치즈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관광자산 구축이 자리하고 있다. 전국적 브랜드로 성장한 ‘임실N치즈’를 기반으로 한 임실치즈테마파크, 육점호 봉어섬 조성 사업은 장기기에 걸친 정책적 투자와 콘텐츠 축적의 결과물로 현재는 임실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사계절 축제와 관광콘텐츠 확장을 더하며 임실군은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현실적 목표로 끌어올리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깨끗하고 안정적 수돗물 공급 총력

순창군, 광역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본격 추진

순창군이 군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안정적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광역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총 182억 원을 투입해 △배수지 3개소 증설 △상수도 관로 약 19km 신설 등 대규모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순창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기후변화대응과 협의회 광역지구 용수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왔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창=이왕원 기자

순창군-담양군, 농업분야 교류·협력 협약 체결

순창군은 11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담양군과 농업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지역 농업인단체 간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농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순창군과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한국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본부, 4-H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 등 양군 주요 농업인단체 대표가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양군은 군민의 날 및 대표 축제, 농업인 행사 상호 교류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정보 교류, 치유·체험·생태농업 프로그램



연계,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협력, 교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상호 기부, 경마공원 공동유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지역·대학 성장·교육거점 도모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 조성 출범식 13일 개최

전북대학교는 정부, 남원시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 중인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벌캠퍼스 조성 사업이 국·공유 재산 교환 및 국유재산 사용승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벌캠퍼스 조성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은 舊)서남대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한 캠퍼스 조성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로 꼽혀 온 국유지와 공유지 간 복잡한 재산 정리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따른 상징적 행사로, 향후 캠퍼스 조성사업이 실질적인 추진 단계로 전환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의미를 갖는다.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는 남원시가 사립대 부지를 매입해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국유지와 남원시 소유 토지 간 교환을 추진 후, 전북대학교가 해당 부지에 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국·공

유재산 교환과 국유재산 사용승인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캠퍼스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캠퍼스 조성이 진행 중인 단계에 있어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 전북대학교는 남원 글로벌캠퍼스 개교를 대비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등 해외의 현지에서 유학생 유치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2026학년도 1학년 외국 유학생 모집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출범식은 오는 13일,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 부지 내에서 열릴 예정이며, 행사에서는 현관 설치를 통해 캠퍼스 조성의 공식화를 알리고 향후 조성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정부 관계자와 전라북도, 남원시, 도내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가져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11일 오후 2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관내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과 함께 ‘2026년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자금·창업·기술·인력·고용·수출·판로 등 분야별로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해 기업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북지방노동청, 전북직식산업센터 등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2026년 중소기업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주요 지원사업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과 1:1 개별 상담 창구를 운영해 기업들이 지원사업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남원시는 현장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사업 연계와 투자유치 및 이전·신증설 가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밀착 상담을 병행하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펼쳐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남원시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별도로 배포하는 등 설명회 이후에도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애향장학회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 이어져

임실군 애향장학회(회장 심민)에 명절을 앞둔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지난 10일, 임실군 4-H연합회(회장 신동현)에서 200만원, 미라클영농조합법인(대표 최용하)이 200만원의 임실군 애향장학회에 총 400만원의 애향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은 두 단체가 뜻을 모아 동시에 진행돼, 지역 인재 육성에 대



한 짧은 농업인 단체들의 굳건한 연대와 실천 의지를 보여줬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

남원시는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와 경증 질환자에 대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번 비상 진료는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시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버스정류장 및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남원시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설 연휴 보건의료대책반을 지속 운영해 경증 환자 진료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대다수 의료기관이 휴진하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비상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 전개

남원소방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 남원 공설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에서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를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D-day)’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대목을 맞아 유동 인구가 차량 통행이 급증하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연계하여 진행됐다.

남원소방서는 △설 명절 화재안전수칙 및 119화재대피안내를 안내 △주요 소방시설 설치 독려 △점포 내 전기·가스시설 안전사용(노후 전선 교체, 멀티탭 과부하 금지) △영양 종료 후 화기 차단 점검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교육 등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올버튼 119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화재 취약 요소를 합동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